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쫓기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뒤에서 푸드득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다르랴, 두 놈이 또 ㉠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박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 멧을 부러 가며 여지없이 닭아 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조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킁, 킁, 할 뿐이다. 물론 미쳐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며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때어만 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 냈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나흘 전 감자 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된 것은 없다. 계집애가 나물을 캐러 가면 갔지 남 울타리 엮는 데 ㉢ 쌈 이질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 가지고 등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 안고 서로 만나도 본체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런만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향차 망아지만 한 계집애가 남 일하는 놈 보구…….

"그럼 혼자 하지 때루 하디?"

내가 이렇게 내배알는 소리를 하니까,

"너 일하기 좋니?"

또는,

"한여름이나 되거든 하지 벌써 울타리를 하니?"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 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 별로 우스울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게다가 조금 뒤에는 제 집계를 할금 할금 돌아보더니 행주치마의 속으로 껴든 바른손을 뽑아서 나의 턱밑으로 불쑥 내미는 것이다.

언제 구웠는지 더운 김이 핵 끼치는 굵은 감자 세 개가 손에 뿌듯이 쥐였다.

"느 집엔 이거 없지?"

하고 생색 있는 큰소리를 하고는 제가 준 것을 남이 알면은 큰일날 테니 여기서 얼른 먹어 버리란다. 그리고 또 하는 소리가,

"너 봄 감자가 맛있단다."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어라."

나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일하던 손으로 그 감자를 도로 어깨 너머로 쑥 밀어 버렸다.

[A]

그랬더니 그래도 가는 기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쉼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 이건 또 뭐야 싶어서 그때에야 비로소 돌아다보니 나는 참으로 놀랐다. 우리가 이 동네에 들어온 것은 근 삼 년째 되어 오지만 여태껏 가무잡잡한 점순이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 홍당무 처럼 새빨개진 법이 없었다. 게다가 눈에 독을 올리고 한참 나를 요렇게 쏘아보더니 나중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바구니를 다시 집어들더니 이를 꼭 악물고는 엮어질 듯 자빠질 듯 눈독으로 횡하게 달아나는 것이다.

어쩌다 동리 어른이,

"너 얼른 시집을 가야지?"

하고 웃으면,

"염려 마서유. 갈 때 되면 어렵히 갈라구!"

이렇게 천연덕스레 받는 점순이었다. 본시 부끄럼을 타는 계집애도 아니거니와 또한 분하다고 눈에 눈물을 보일 ㉤ 얼병이도 아니다. 분하면 차라리 나의 등어리를 바구니로 한번 모질게 후려썰리고 달아날지언정.

그런데 고약한 그 꼴을 하고 가더니 그 뒤로는 나를 보면 잡아먹으려 기를 북북 쓰는 것이다.

설혹 주는 감자를 안 받아먹는 것이 실례라 하면, 주면 그냥 주었지 '느 집엔 이거 없지.'는 다 뭐냐. 그렇잖아도 저희는 마름이고 우리는 그 손에서 ㉥ 배재를 얻어 땅을 부치므로 일상 굶실거린다. 우리가 이 마을에 처음 들어와 집이 없어서 곤란으로 지낼 제 집터를 빌리고 그 위에 집을 또 짓도록 마련해 준 것도 점순네의 호의였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농사 때 양식이 딸리면 점순이네한테 가서 부지런히 꾸어다 먹으면서 ㉦ 인 품 그런 집은 다시 없으리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곤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열 일곱씩이나 된 것들이 수군수군하고 붙어다니면 동네의 소문이 사납다고 주의를 시켜 준 것도 또 어머니였다. 왜냐하면 내가 점순이 하고 일을 저질렀다가는 점순네가 노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땅도 떨어지고 집도 내쫓기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이놈의 계집애가 까닭없이 기를 북북 쓰며 나를 말려 죽이려고 드는 것이다.

눈물을 흘리고 간 담날 저녁나절이었다. 나무를 한 짐 잔뜩 지고 산을 내려오려니까 어디서 닭이 죽는 소리를 친다. 이거 뉘집에서 닭을 잡나, 하고 점순네 울 뒤로 돌아오다가 나는 고만 두 눈이 뚱그렸다.

[B] 점순이가 저희 집 봉당에 홀로 걸터앉았는데 이게 치마 앞애다 우리 씨암탉을 꼭 붙들어 놓고는,
"이놈의 씨닭! 죽어라 죽어라."
요렇게 암팡스레 꽤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대가리나 치면 모른다마는 아주 알도 못 낳으라고 그 불기짱깨를 주먹으로 콕콕 쥐어박는 것이다.
나는 눈에 쌍심지가 오르고 사지가 부르르 떨렸으나 사방을 한번 휘둘러보고야 그제서야 점순이 집에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잠은 참 지게 막대기를 들어 울타리의 중턱을 후려치며,
"이놈의 계집애! 남의 닭 알 못 낳으라구 그러니?"
하고 소리를 뽕 질렀다.

그러나 점순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고 그대로 의젓이 앉아서 제 닭 가지고 하듯이 또 죽어라, 죽어라, 하고 꽤는 것이다. 이걸 보면 내가 산에서 내려올 때를 겨냥해 가지고 미리부터 닭을 잡아가지고 있다가 네 보라는 듯이 내 앞에서 쫓아지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남의 집에 뛰어들어가 계집애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형편이 썩 불리함을 알았다. 그래 닭이 맛을 적마다 지게 막대기로 울타리를 후려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울타리를 치면 칠수록 울썩이 물러앉으며 뼈대만 남기 때문이다. 허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나만 밀지는 노릇이다.

"아, 이년아! 남의 닭 아주 죽일 터이야?"

내가 도끼눈을 뜨고 다시 꽤 호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울타리께로 쪼르르 오더니 울 밖에 섰는 나의 머리를 겨누고 닭을 내팽개친다.

"에이 더럽다! 더럽다!"

"더러운 걸 널더러 입때 끼고 있으랬니? 망할 계집애년 같으니"

하고 나도 더럽단 듯이 울타리께를 횡허케 돌아내리며 약이 오를 대로 다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암탉이 풍기는 서슬에 나의 이마뼈기애다 물지똥을 찍 갈겼는데 그걸 본다면 ㉠ 알집만 터졌을 뿐 아니라 골병은 단단히 든 듯싶다. 그리고 나의 등 뒤를 향하여 나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음성으로,

"이 바보 녀석아!"

"애! 너 배넛병신이지?"

그만도 좋으련만,

"애! 너 느 아버지가 고자라지?"

"뭘 울아버지가 그래 고자야?"

할 양으로 열병거지가 나서 고개를 꺾 돌리어 바라봤더니 그때까지 울타리 위로 나와 있어야 할 점순이의 대가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는다. 그러다 돌아서서 오자면 아까에 한 옥을 울 밖으로 또 퍼붓는 것이다. 옥을 이토록 먹어 가면서도 대거리 한 마디 못하는 걸 생각하니 돌부리에 채이어 발톱 밑이 터지는 것도 모를 만큼 분하고 급기야는 두 눈에 눈물까지 불끈 내솟는다.

그러나 점순이의 침해는 이것뿐이 아니다.

닭벼슬을 좋아한다면서도 사람들이 없으면 툼툼이 제 집 수탉을 몰고 와서 우리 수탉과 싸움을 붙여 놓는다. 제 집 수탉은 썩 험상궂게 생기고 싸이라면 화를 치는 고로 으레 이길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툼하면 우리 수탉이 면두며 눈깔이 피로 흐드르하게 되도록 해 놓는다. 어떤 때에는 우리 수탉이 나오지를 앞으니까 요놈의 계집애가 모이를 쥐고 와서 쫓아내다가 싸움을 붙인다.

이렇게 되면 나도 다른 ㉡ 배차를 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는 우리 수탉을 붙들어 가지고 넌지시 장독께로 갔다. 씹닭에게 고추장을 먹이면 병든 황소가 살모사를 먹고 ㉢ 용을 쓰는 것처럼 기운이 뻗친다 한다. 장독에서 고추장 한 접시를 떠서 닭 주둥아리께로 들여 밀고 먹여 보았다. 닭도 고추장에 맛을 들였는지 거스르지 않고 거진 반 접시 턱이나 곧잘 먹는다. 그리고 먹고 금시는 용을 못쓸 터이므로 얼마쯤 기운이 돌도록 헛속애다 가두어 두었다.

발에 두엄을 두어 짐 저내고 나서 쉼 참에 그 닭을 안고 밖으로 나왔다. 마침 밖에는 아무도 없고 점순이만 저희 울안에서 현웃을 뜯는지 혹은 숨을 터는지 웅크리고 앉아서 일을 할 뿐이다.

01

어휘의 문맥적 의미 · 객관식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를 풀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두 마리의 닭이 서로 뒤섞여 싸우게 되었다.
- ② ㉡: 남이 하는 일을 정성껏 도와주는 행위이다.
- ③ ㉢: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 ④ ㉣: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권리나 그 땅이다.
- ⑤ ㉤: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 주기 위한 아부의 말이다.

02

인물의 심리와 사회적 제약 · 객관식

윗글에서 '나'가 점순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순네가 집터를 빌려주고 집까지 짓게 해 준 은인이기 때문이다.
- ② 점순과 수군거리며 다니다가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다.
- ③ 점순의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인품이 훌륭하다는 칭찬을 듣는 분들이기 때문이다.
- ④ 점순과 갈등을 빚을 경우 소작권을 잃고 마을에서 쫓겨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⑤ 점순이 본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03

사건의 인과적 통합 이해 · 객관식

윗글의 사건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점순이 '나'의 답을 확대하는 것은 감자를 거절당한 것에 대한 보복의 성격을 띤다.
- ② '나'는 점순의 집안 형편이 우리보다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점순을 무시하고 있다.
- ③ 점순이 울타리를 엮는 '나'에게 말을 건 것은 일손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의도였다.
- ④ '나'는 점순의 얼굴이 붉어진 이유가 날씨가 갑자기 풀렸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⑤ 점순이 답싸움을 붙이는 이유는 자신의 수탈이 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04

인물 묘사 단어의 미세 차이 · 객관식

윗글에서 점순의 행동을 묘사한 표현 중, '나'를 향한 점순의 심리적 상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는?

- ① 천연덕스레
- ② 의젓이
- ③ 암팡스레
- ④ 점잖게
- ⑤ 넌지시

05

소재의 의미 정밀 분석 · 객관식

[A]의 '감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순이 자신의 호의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매개물이다.
- ② '나'와 점순 사이의 계급적 격차를 일시적으로 환기하는 소재이다.
- ③ 점순이 남몰래 준비한 정성이 담긴 '더운' 상태의 음식이다.
- ④ '나'에게 거절당함으로써 점순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 ⑤ '나'가 점순의 집안 형편을 걱정하여 도로 돌려준 배려의 징표이다.

06

소작 관계의 디테일 분석 · 객관식

윗글에 나타난 '나'의 가족과 점순네 가족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부모님은 점순네의 경제적 지원과 인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점순네는 '나'의 가족이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물리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다.
- ③ '나'의 어머니는 점순과의 관계가 가족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 ④ 점순네는 식량이 부족한 농번기에 '나'의 가족에게 양식을 빌려주는 시혜적 태도를 보인다.
- ⑤ '나'의 가족은 점순네의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매년 수확물의 절반 이상을 자발적으로 상납한다.

07

인물의 대응 방식 변화 통합 · 객관식

점순의 괴롭힘에 대한 '나'의 대응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처음에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려 했으나, 점순의 모욕이 심해지자 답을 통한 간접적 반격을 꾀한다.
- ② 점순의 호의를 무시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점순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의 답을 희생시킨다.
- ③ 점순의 집안 배경에 위축되어 방어만 하다가, 마을 어른들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 ④ 처음에는 점순의 의도를 파악하고 동조했으나, 점순의 공격이 거세지자 절교를 선언한다.
- ⑤ 점순의 욕설에 대거리하며 적극적으로 싸우다가, 결국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체념에 빠진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유정의 소설에서 '해학'은 비극적일 수 있는 현실의 갈등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장치이다. 특히 '동백꽃'의 서술자인 '나'는 점순의 애정 공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어수룩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무지는 독자로 하여금 인물 간의 긴장감을 희극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마름과 소작인이라는 계급적 갈등조차 사춘기 소년 소녀의 풋풋한 사랑 싸움으로 치환하는 효과를 거둔다. 그러나 이들의 갈등 이면에는 당시 농촌 사회의 엄격한 계급 구조가 실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① 점순이 '나'의 답을 때리는 행위는 〈보기〉에서 말하는 '애정 공세'의 역설적 표현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가 점순의 얼굴이 붉어진 이유를 날씨 탓으로 돌리는 것은 서술자의 '어수룩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겠군.
- ③ 점순의 욕설에 '나'가 제대로 대거리하지 못하는 것은 〈보기〉의 '엄격한 계급 구조'가 내면화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나'가 답에게 고추장을 먹이는 엉뚱한 행동은 갈등의 긴장감을 '희극적'으로 완화하는 해학적 장치에 해당하겠군.
- ⑤ 점순이 '나'의 아버지까지 욕하는 것은 계급적 우월감을 이용해 '나'의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통해 주인공 점순의 내면 심리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② 해학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심각하지 않게 그려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사건의 긴박함을 높이고 독자의 긴장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며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전지적인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다.

윗글에서 점순이 '나'를 괴롭히는 장소나 상황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공개적인 장소를 선택한다.
- ② '나'의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보란 듯이 행동한다.
- ③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확인한 후 은밀하게 도발한다.
- ④ 점순네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를 부른다.
- ⑤ '나'가 일에 집중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만 골라서 나타난다.

윗글의 '답싸움'에 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점순의 수탉과 '나'의 수탉은 각각 마름과 소작인이라는 계급적 상징성을 띤다.
- ② 점순에게 답싸움은 자신의 감정을 거절한 '나'에게 가하는 심리적 형벌의 수단이다.
- ③ '나'에게 답싸움은 점순과의 직접적인 싸움을 대신하는 대리전의 양상을 보인다.
- ④ 답싸움의 승패는 두 가문 사이의 경제적 주도권이 역전되었음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 ⑤ 답싸움은 인물 간의 갈등을 시각적이고 역동적으로 형상화하는 극적 장치이다.

윗글의 '어머니'와 '점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는 점순네의 호의를 전략적 이용의 대상으로 보며 '나'에게 친하게 지낼 것을 권한다.
- ② 점순은 어머니의 주의 사항을 역이용하여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치밀함을 보인다.
- ③ 어머니의 주의를 '나'가 점순의 행동을 애정 표현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심리적 장벽이 된다.
- ④ 점순은 '나'의 어머니가 자신을 칭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나'를 유혹한다.
- ⑤ 어머니와 점순은 모두 '나'가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13

표현 효과의 미세 차이 · 객관식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점순네 수탉의 공격성을 의인화하여 점순의 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직유법을 사용하여 점순이 느낀 수치심과 분노의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나'의 부모님이 가진 마름 집안에 대한 경외심과 의존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 점순의 행동이 '나'에게 입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⑤ ㉤: 과장된 비유를 통해 닭의 기운을 돋우려는 '나'의 절박함과 희극적 설정을 보여준다.

14

사회적 배경의 외부 사례 적용 · 객관식

〈보기〉는 1930년대 농촌의 사회적 상황을 분석한 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당시 조선의 농촌은 지주-마름-소작인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층 구조가 지배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해 소작권을 관리하며 소작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소작인들은 생존을 위해 마름의 횡포를 견뎌야 했으며,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개인 간의 인간적인 유대마저 왜곡시켰다. 특히 소작인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회적 위치를 일찍부터 내면화하여, 마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위축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 ① '나'가 점순의 감자를 거절한 것은 마름의 횡포에 맞서려는 소작인 계층의 집단적 저항 의식의 발로이겠군.
- ② 점순이 '나'의 턱밑으로 감자를 내미는 행위는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인도주의적 실천이겠군.
- ③ '나'가 점순의 욕설을 듣고도 눈물만 흘리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한 '심리적 위축'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겠군.
- ④ 점순네가 '나'의 가족에게 양식을 빌려주는 것은 계급 구조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한 마름 계층의 자발적 노력이겠군.
- ⑤ 어머니가 '나'에게 점순과 거리를 두라고 한 것은 소작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주체적인 교육 방식이겠군.

15

시간 구성의 디테일 분석 · 객관식

윗글의 시간적 배경과 사건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늘' 발생한 수탉의 싸움이 현재의 시점에서 서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② '나흘 전'의 감자 사건은 현재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과거의 삽화이다.
- ③ '어제'까지의 관계는 오늘 급격히 변화한 점순의 태도와 대비를 이루는 설정이다.
- ④ '눈물을 흘리고 간 담날'의 사건은 점순의 공격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단계이다.
- ⑤ '근 삼 년째'라는 시간은 '나'와 점순의 갈등이 매우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왔음을 의미한다.